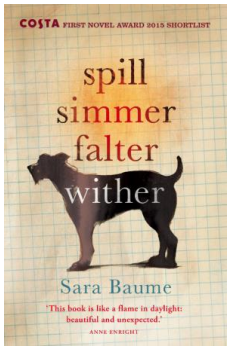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SPILL SIMMER FALTER WITHER
가제 : 쏟아지고 끓고, 무너지고 시든
저자 : Sara Baume
출판사: Windmill Books
발행일: 2015년 10월 8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14개국 판권 계약
* 2015 아일랜드 문학상인 루니 상 수상작, LA 타임스 도서상과 코스타 데뷔소설상 결승작 / 데스몬드 엘리엇 상, 가디언 데뷔소설 상 등 수많은 문학상 후보에 오른 작품
* "문장에 담긴 리듬에 푹 빠져보면, 소금기 섞인 공기와 남들과 다른 존재는 받아들이지 않는 작은 마을의 따가운 시선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NPR, 2016 최우수 도서 선정
* "한낮에 피어난 불꽃처럼 아름답고,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주는 소설. 너무 사소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에 담긴 엄청난 효과를 이야기한다" – 소설가 앤 엔라이트(Anne Enright)

다른 사람과 거의 교류 없이 혼자 살아온 남자가 매주 딱 한 번, 장을 보러 외출하는 날 허름한 상점 창문에 붙은 광고지를 보고 발길을 멈춘다.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알아보기도 힘든 뿌연 사진과 함께 '동정심과 참을성이 많은 분. 다른 애완동물이나 네 살 미만 아이가 없는 분'이라는 조건이 강조되어 있었다. 하지만 남자의 발길을 멈추게 한 건 그런 문구도, 뿌연 사진도 아니었다. 얼어버린 것처럼 공중에 멈춰 있는 꼬리, 어두침침한 배경 사이로 고개를 빼든 개의 눈빛과 온 몸에서 조용히 뿜어져 나오는 슬픔 때문이었다. 남자는 그 잡화상을 매주 들르는데 왜 이 광고를 처음 봤을까, 의아해하며 가만히 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개를 발견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남자의 아버지는 남자를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애'라고 여겼다. 그래서 평생을 집안에 가둬놓고 학교도, 놀이터도,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어떤 곳에도 내보내지 않았다. 남자는 매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지와 상관없이 갇혀 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텅 빈 집에서 계속 혼자 살면서 쉰일곱의 어느 날 개를 만나기 전까지, 남자의 삶은 책과 일주일에 한 번 장보러 나가는 외출 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이동식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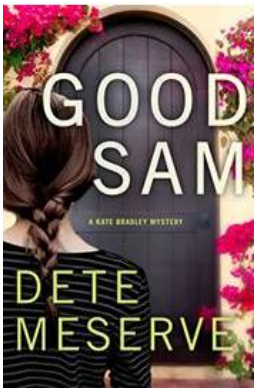
관은 그가 유일하게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거기서 빌린 책을 펼쳐 들고 아무도 지나치게 길게 그를 응시하거나 수군대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서 살았다. 상점 직원이 인사치레로 건네는 작은 농담 하나, 안부를 묻는 인사가 남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이런 생활에 만족했고, 달리 바꾸고 싶다거나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 개를 데리러 40분간 운전을 해서 유기견 보호소로 찾아간 건 남자가 처음 시도한 도전이고 모험이었다. 이상하게도 일말의 주저함이나 갈등, 고민도 없었다.

개는 남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았다. 오소리 사냥용으로 훈련을 받았고 그 역할에 너무 충실했던 나머지, 사냥감과 사냥감이 아닌 대상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친근하게 접근하는 다른 동물을 모두 사냥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고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았다. 사냥에 나갔다가 크게 다쳐 눈도 하나 없이, 온 몸이 상처투성이인 녀석을 남자는 말없이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애꾸눈'이라고 이름 붙이고, 뒷좌석에 태워 집으로 오는 길부터 남자는 말을 걸기 시작했다. 생전 처음으로, 살아 숨쉬는 다른 존재에게 자신이 몇 살이고,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만가만 이야기를 했다.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만 그렇다고 다 포기하기에는 이른 지금, 남자에게는 그렇게 새로운 친구, 가족, 말동무가 생겼다.

소설은 남자의 이름은 물론 그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한 번도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저 그가 애꾸눈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속에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소설의 제목에 담긴 네 가지 상태는 그가 애꾸눈과 함께 아일랜드의 해안가 작은 동네에서 사계절을 보내며 겪은 일들을 암시한다. 뜻밖의 만남으로 한 식구가 된 남자와 애꾸눈이 서로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교류하는 것의 소중함을 느낀 행복한 시간은 곧 남자가 처음부터 감지한 불안이 현실이 되면서 금이 가기 시작한다. 바로 애꾸눈의 멈출 줄 모르는 사냥 본능이었다. 애꾸눈을 산책시키느라 매주 1회로 제한했던 남자의 외출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개가 동네 개들을 공격하고 짖고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하자 마을 사람들은 지금껏 곁에 있는 줄도 몰랐던 남자의 존재를 새삼 인지한다. 등에 이상한 혹이 튀어나온 나이든 남자, 가족도 없이 홀로 사는 약간 모자라 보이는 그가 키우는 사나운 개는 사람들에게 큰 거부감을 안겨 주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남자는 주민들의 신고로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결국 남자는 개를 데리고 길을 떠난다. 남자가 느끼는 감정, 해안가 풍경, 개와 공유하는 마음들이 시처럼 아름답게 묘사하며 외로움의 절망적 단상, 상실, 우정, 피부 깊숙이 파고든 상처를 드러내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는 희망의 힘을 보여주는 멋진 소설이다.

<저자 소개>

새라 바움(Sara Baume)은 영국 랭커셔에서 태어나 아일랜드에서 자랐다. 미술과 문예창작을 공부하고 「아이리시 타임스」, 「가디언」 등 여러 신문과 잡지에 비평과 소설을 기고해 왔다. 데이비 번(Davy Byrne) 단편소설상, 헤네시(Hennessy) 아일랜드 신인작가상, 루니 문학상(Rooney Prize for Literature), 아일랜드 최우수 신인작가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제목 : GOOD SAM
가제 : 착한 사마리아인
저자 : Dete Meserve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6월 20일
분량 : 236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로맨스소설

* 넷플릭스 시리즈로 제작, 2019년 방영 예정
* 2015 내셔널 인디 우수도서 로맨스 부문 우승작, 독립출판 작가네트워크 로맨스 소설 부문 수상작, 플로리다 출판협회 금메달 / 아마존 5점 만점 서평 300건 이상 등록
* "지역 TV 뉴스의 상세한 내부 사정을 토대로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탄탄한 로맨스에 미스터리 요소가 가미된 소설" - 「커커스 리뷰」

모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누구도 감히 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질문을 던져 사건의 핵심을 파고드는 끈질긴 기자, 케이트 브래들리에게 영 어울리지 않는 취재거리가 주어진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어느 평범한 가정집 현관에 누가 10만 달러가 현찰로 담긴 가방을 놓고 사라진 일이었다.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일 하고 싶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기부하는 일이 그리 드문 것도 아닌데 왜 이걸 굳이 취재까지 하라고 하나, 하는 생각을 케이트만 한한 것도 아니었다. LA 채널 11 뉴스 팀에는 유명인사에게 파파라치처럼 들러 붙어서 스캔들을 캐내는 기자도 있고, 시청자들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심어주는 이야기들을 쏙쏙 골라오는 동료도 있었다. 케이트는 바로 직전에 완료한 취재가 열두 명이 숨지고 최소 여섯 명이 다친 대형 지하철 사고였고 이제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의혹을 좀 더 깊이 캐볼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뉴스 팀장은 고집을 꺾지 않고 케이트에게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정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케이트는 거의 처음으로 '좋은' 이야기를 취재하러 나선다. 이 일이 확고하다고 믿었던 삶의 목표와 가치관, 그리고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모두 바꿔놓을 거라곤 그 때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다.

케이트가 다니는 방송국에 독점 취재를 허락한 첫 번째 제보자를 인터뷰하러 간 케이트는 점점 사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다. 이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이 '착한 샘'이라고 애칭처럼 부르는 익명의 자선가는 숫자 8일 큼직하게 새겨진 커다란 캔버스 가방에 돈을 담아 쥐도 새도 모르게 현관에 두고 갔다. 첫 취재결과가 방송을 타고 난 뒤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누가 이런 거액을 무슨 신문 배달하듯 툭 놓고 간단 말인가? 게다가 LA 곳곳에서 자신도 그런 돈을 받았다는 추가 제보자가 등장하면서 착한 샘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뜨거워진다. 케이트는 돈을 받은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날수록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모두의 생각처럼 착한 샘이 자선활동을 하려는 것이라면, 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돈을 받았을까? 모든 일에 의혹을 갖는 기자

답게, 케이트는 어느 돈이 넘쳐나는 사람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괴한 장난을 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버리지 못한다. 장난이라면 목적은 무엇일까? 순수한 의도라면 왜 당당히 나서지 못할까? 미국 전체가 착한 샘의 정체를 밝히는 일에 열렬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즈음, 케이트는 자신이 착한 샘이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는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를 만나러 나간 케이트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나타난 것을 보고 기겁한다. 한 때 약혼자였던 잭이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인 잭은 분명 10만 달러를 척척 낼 수 있을 만한 재력은 있었지만 케이트가 아는 그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숨겨가며 좋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 이미 약혼은 깨진 지 오래였고 케이트는 기억에서 잭을 지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잭은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써 왔다는 사실도 그가 착한 샘이라 믿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였다. 케이트의 마음을 돌리려고, 혹은 관심을 받기 위해 충분히 샘인 척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잭이었기 때문이다. 역시나 잭의 주장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진짜 착한 샘이 사용한 캔버스 가방까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따라 했다는 것도 밝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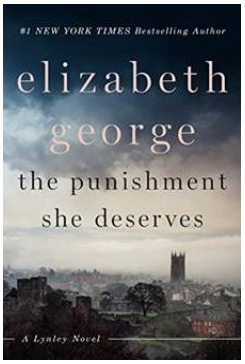
그렇다면 누가 착한 샘일까? 취재를 이어가던 어느 날 케이트는 물에 빠져 익사할 뻔한 사고를 당하고, 누군가 곧바로 뛰어들어 겨우 목숨을 건진다. 케이트를 구조해준 사람은 LA 카운티 소방관이자 봉사활동으로 수색 구조 활동을 해온 에릭이었다. 엄청나게 잘생긴 외모보다 케이트를 더 놀라게 한 건 에릭이 닳고 닳은 표현인줄만 알았던 '자기 몸을 불살라가며 남을 돕는' 일을 진짜로 생활처럼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동안 온갖 비극적인 사고와 비리, 끔찍한 범죄를 취재하면서 세상에 정말 착한 사람은 없다고,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 그런 척 할 뿐이라는 냉소적인 생각이 확고했던 케이트는 착한 샘과 에릭을 통해 그것이 잘못된 확신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그리고 착한 샘의 숨은 의도와 정체를 밝히는 일에만 집중했던 케이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정말 아무런 의도도, 목적도 없이 순수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에릭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케이트는 묘한 의심이 든다. 혹시 에릭이 착한 샘이 아닐까? 하지만 박봉의 소방관에게 그런 엄청난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부동산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에릭의 형 브라이언은 평소 보트와 요트를 타고 물에서 즐기는 스포츠에 푹 빠져 살았다. 틈 날 때마다 형과 수상 스포츠를 즐기던 에릭은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 사고로 형을 잃고 수년 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다. 누구도 에릭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에릭은 형을 구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더더욱 구조활동에 온 몸을 내던진 것이다. 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어마어마한 보험금이 전해졌을 때, 에릭은 개인적으로 그 돈을 쓸 생각을 단 1초도 하지 않았다. 케이트는 에릭의 암울했던 과거와 고통을 모두 껴안아주고, 마침내 찾아낸 착한 샘을 통해 세상에 분명 존재하는 선함의 가치를 오롯이 받아들인다. 미스터리와 로맨스가 적절히 섞인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디트 메저브(Dete Meserve)는 Wind Dancer Films 의 파트너이자 영화, TV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

제목 : THE PUNISHMENT SHE DESERVES
가제 : 마땅한 벌
저자 : Elizabeth George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8년 3월 20일
분량 : 704 페이지
장르 : 범죄스릴러소설




***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판권 계약**
*** 30개국 이상 출간되어 수백 만 권 판매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시리즈의 20번째 이야기**
*** "서스펜스와 사회비평, 폭력과 비애, 악행과 구원의 가능성까지, 이 모든 것을 자신만의 문체로 아우를 수 있는 작가의 작품" - 「월 스트리트 저널」**
*** "이 작가의 이야기에 한 번 이끌리면 결코 저항할 수 없다" - 「USA 투데이」**

해가 지고 거리에 어둠이 내리면 술집에 틀어박혀 한껏 취하거나 조용히 잠자리에 드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외딴 마을 러들로에서 영국 국교회 부제가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의혹을 받고 체포된다.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희롱했다는 것이다. 워낙 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정식 경찰서 대신 지역별로 배치된 지원인력이 관리하는 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원관은 이언 드루이트라는 이름의 이 성직자를 받아들인다. 조사 결과 충분히 의심 받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지원관은 이언을 멀리 떨어진 경찰로 그를 인계한다. 그러나 신성한 일을 하는 성직자가 또 부끄러운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일단락될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이언 드루이트가 조사 도중 숨을 거두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 재수사가 시작되고 한 번 붙들면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파고드는 집념으로 유명한 바바라 헤이버스와 토머스 린리 형사는 평온해 보이지만 표면 아래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는 러들로로 향한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수 차례 오르며 수많은 팬을 보유한 '린리 형사 시리즈'의 스무 번째 이야기로 완성된 이 소설은 2015년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이야기로 기존 팬들의 기대를 한껏 충족시키고 처음 이 시리즈를 접한 독자들도 생소한 느낌 없이 그대로 빠져들게 이끄는 힘을 발휘한다. 권력에 전혀 관심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끈질기게 진실을 찾아가는 린리 형사와 그의 찰떡 파트너 바바라 형사가 작은 마을에 꽁꽁 숨겨진 사악한 의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함께 짜임새 있게 펼쳐지는 범죄 스릴러 소설이다.

이언 드루이트를 조사하던 담당 경찰은 그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목을 매 자살했다고 결론 내리지만, 러들로에서 꽤 유명한 지역 유지인 사망자의 부친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대대로 양조장을 운영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언 드로이트의 아버지는 종교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명예훼손 사안이라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고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인을 찾아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 급기야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재수사하지 않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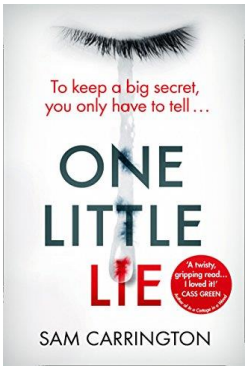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 여파는 런던 경찰청까지 이른다. 정치인까지 나서서 골치 아픈 사건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도 부국장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 이참에 명망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신세를 지게 만들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의 권력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눈엣가시처럼 구는 바바라 형사를 치워버려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다. 바바라는 분명히 이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고, 늘 해온 것처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들면 그 핑계로 아예 경찰청에서 내보낸다는 것이 부국장의 속셈이었다. 그러나 이런 속내를 제대로 실현해줄 파트너로 바바라와 늘 함께 수사해온 린리 형사 대신 이사벨 아더리 형사를 지명한 것부터가 부국장의 실수였다. 바바라는 호락호락하게 당할 형사가 아니었고, 이사벨은 그의 욕심을 채워줄 여유가 없었다.

얼마 전 이혼을 하고 술을 퍼 마시기 시작한 이사벨은 바바라와 함께 러들로로 향하지만, 발걸음은 쇠를 단 것처럼 무겁다. 전 남편이 두 아이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떠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삶의 낙이 다 사라진 마당에 수사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는데다 술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사벨은 그곳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를 전부 그대로 승인하려고 하지만 바바라는 처음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 이언의 부친이 주장한 것처럼, 그가 아이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도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경찰서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결국 서둘러 재조사를 마무리하려는 이사벨의 의견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던 바바라는 오랜 파트너, 토머스 린리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바바라와 함께 대부분이 은퇴한 노인이거나 러들로에 딱 하나 있는 웨스트머시아 대학의 학생들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러들로를 찾아간 린리 형사는 마을 전체가 큰 막에 둘러싸인 느낌을 받는다. 그 아래, 모두 한 마음으로 약속한 것처럼 감추는 비밀 속에 이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숨어 있다. 제목이 이야기하는 '그녀'는 누구일까? 이야기가 계속해서 한 꺼풀씩 벗겨질수록 독자는 여러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하게 된다. 사건을 맹렬히 파고든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찍힌 바바라 형사, 유능한 경찰이지만 삶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무너져버린 이사벨 형사에 이어 러들로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젊은 여대생들의 무모한 모습도 떠올리게 된다. 무분별한 섹스와 폭음, 재미 있고 신나는 일을 끝없이 찾아 헤매며 한 순간의 재미를 위해 장난과 범죄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들면서도 혼자 있을 때면 감당할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신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린리 형사의 수사를 통해 이언의 수상한 죽음과 조금씩 연결된다.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길이에도 지루함 없이 모든 등장인물을 철저히 깊이 있게 탐구하며 행인, 용의자, 희생자, 법의 수호자까지 모두의 시선에서 한 사건을 조명하고 마지막 반전까지 독자를 이끄는 흡입력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엘리자베스 조지(Elizabeth George)는 심리 서스펜스 시리즈로 수많은 팬들을 보유한 베스트셀러 작가다. 1990년에 세계적인 미스터리 소설에 수여하는 독일의 저명한 상 MIMI를 수상하고 프랑스 추리문학상(Grand Prix de Littérature Policière)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현재까지 80편이 넘는 소설을 발표했으며 다수가 BBC 시리즈로 제작됐다.

제목 : ONE LITTLE LIE
가제 : 작은 거짓말 하나
저자 : Sam Carrington
출판사: Avon
발행일: 2018년 9월 6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심리스릴러




* **"모자 간의 결합력,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엄마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 – 소설가 잉그리드 알렉산드라(Ingrid Alexandra)**
* **"심리학자, 경찰, 범죄자, 희생자를 영리하게 하나로 엮은 매력적인 소설. 독창적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 – 소설가 어맨다 롭슨(Amanda Robson)**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다투면 엄마들끼리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는 주된 이유는 '내 자식이 그럴 리 없다'는 부모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다. 자기 눈 앞에서 벌어진 일도 이렇게 대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이가 벌인 말썽도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부모들이 허다하다. 하물며 아이가 법을 어기고 범죄자가 된 경우에도, 부모는 끝까지 아이를 믿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과 함께 일말의 가능성, 혹시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 앨리스의 아들 아들 카일은 고작 열여덟 살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 살인자가 되었다. 앨리스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고 4년이 지난 후에도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카일은 사건이 벌어진 그 당시는 물론이고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잘못했다고 뉘우치거나,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원통해하거나,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기색이라도 보인다면 좋으련만 카일은 내내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다. 앨리스는 자기 아이가 사람 목숨을 빼앗았다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의혹,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든 가라앉히기 위해 발버둥쳤다. 범죄자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함께 모여 남들에게 쉽사리 말할 수 없는 속내를 털어놓고 함께 위로하는 모임을 만든 것도 그런 노력 중 하나였다.

심리학자인 코니 서머스는 수감자들의 심리상태를 평가해서 조기 석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했다. 코니는 리키 하그레이브라는 사람을 크게 교정되었다고,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여 교도소 문을 나가게 했다. 그러나 리키 하그레이브는 며칠 만에 다시 여성을 강간한 것으로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르고 다시 수감되고 말았다. 이 일은 코니에게서 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누가 그런 심리학자에게 믿고 심리분석을 맡길 수 있을까? 상담 고객은 뚝 끊기고, 경제적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었지만 코니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스트레스로 폭식과 폭음을 일삼던 그녀를 구해준 건 집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인 새로운 룸메이트, 린지 웨이드 형사였다. 리키가 저지른 사건 때문에 처음 알게 된

린지 형사는 절망에 갇혀 있는 코니를 다시 세상에 끌어내고 운동도 시키고 의미 없는 폭식도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했다. 겨우 회복하고 심리상담 일도 다시 시작한 코니는 늘 일손이 부족해 허덕이는 교도소 심리분석 팀이 도움을 요청하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또 다시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나 린지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도전해보기로 한 코니는 상담해야 할 수감자 명단에서 뜻밖의 이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얼마 전 처음 상담 고객으로 만난 앨리스의 아들, 카일이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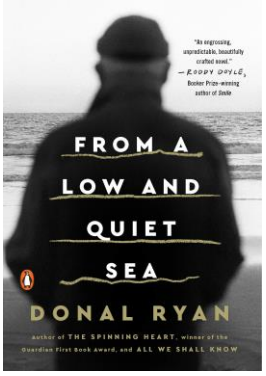
앨리스는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과도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일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코니는 그런 앨리스가 어딘가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느끼지만 무엇을 왜 숨기는지 명확히 집어내지 못한다. 소설은 카일에게 아들을 잃은 엄마, 데보라가 재판정에서 아들이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었는지 낱낱이 들어야 했던 2014년의 어느 날에서 시작하여 4년 후 코니와 앨리스, 그리고 데보라의 생활을 통해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그 사건의 실체를 조금씩 드러낸다. 앨리스가 조직한 작은 모임에 등장한 앤젤라라는 여성, 역시나 그 모임의 회원으로 등장한 빌, 코니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린지 형사와 동료 찰리 형사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카일 사건의 진상에 모두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빌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고 앨리스가 누군가로부터 머리를 얻어 맞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지고, 교도소에서는 카일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로 바깥에 있는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한다. 급기야 사라진 빌의 딸이 죽은 시체로 발견되고 코니는 '카일에게 완전히 휘둘렸다'고 털어놓는 동료 심리학자의 고백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리고 교도소 심리상담을 다시 시작한 시기에 개인 상담을 받고 싶다며 찾아와 자신을 '앨리스'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신분을 속였다는 사실도 뒤늦게 깨닫는다. "제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는 그 여성의 고백으로 카일의 엄마라고 코니는 확신했지만, 그녀는 앨리스도 아니고 카일의 엄마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러나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고백만큼은 진실이었다.

거짓과 교묘한 조종, 배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니는 앨리스인 것처럼 자신을 찾아온 여성이 앤젤라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녀의 아들, 톰과 카일, 그리고 빌의 실종된 딸까지 세 명이 4년 전 살인사건에 모두 연루되어 있었다. 카일의 단독범행으로 몰고 가려던 계획이 어긋나자 새로운 범죄를 계획한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들의 치밀한 거짓말이 사슬처럼 연결되고 코니와 린지 형사는 켜켜이 덮인 가림 막 속에서 마침내 진실을 끄집어낸다. 여러 인물들의 시각에서 짤막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소설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저자 소개>

샘 캐링턴(Sam Carrington)은 영국 국민의료보험(NHS) 소속 간호사로 15년간 일하고 심리학 학위를 취득한 후 교도소에서 행동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데뷔소설 SAVING SOPHIE는 아이북스, 코보(kobo) 전자책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10만 권 이상 판매됐다. 두 번째 소설 BAD SISTER는 출간 직후 북셀러 인기도서 차트 15위권, 미국 전자책 종합차트 100위권에 진입했다.

# 추가 업데이트




제목 : FROM A LOW AND QUIET SEA
가제 : 깊고 고요한 바다로부터
저자 : Donal Ryan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18년 3월 22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Shortlisted for 2018 Costa Book Award
* Longlisted for 2018년 Man Booker Prize
* 2018년 3월 출간 이후 하드커버 22,000부 이상 판매
* "연민과 함께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을 준 소설. 이 작가만큼 큰 연민을 담아 글을 쓰는 아일랜드 작가를 떠올리기 힘들다." - 소설가 루이스 오닐

아일랜드 문학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라이언의 신작이 드디어 독자들 앞에 선을 보인다. 전작이자 지금까지의 대표작인 『All We Shall Know』는 2013년 맨부커상 후보에 오르고, 아일랜드 베스트 셀러 1위에 올랐으며, 미국, 체코, 프랑스 등 6개국에 판권이 계약되어 15만부 이상 판매되었다. 내밀한 아픔을 가진 주인공 멜로디는, 자신이 가르치던 소년과 하룻밤을 보내고 남편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새 생명을 품게 된다. 그리고 세상과 동떨어진 독특한 생활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를 만나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저자는 이 과정을 잔잔한 문체로 그리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의 새로운 대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책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등장인물의 여정을 그린다. 각기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 놓인 세 남자 파루크, 램피와 존이 혼자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편안히 머무를 곳, 마음을 누일 '집'을 찾아 헤매는 줄거리이다.

파루크는 시리아의 의사로,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과 살고 있다. 그의 어린 시절과 달리 지금의 시리아는 커다란 총을 맨 민병대가 가득한 험악한 분위기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시리아가 딸이 살기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망명하기로 결정한다. 시리아에서는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얻어 맞아 실려오고, 남자는 의사라도 여자 몸에 손을 대면 안되기 때문에 여자 간호사, 여자 의사가 없으면 아무리 급한 처치가 필요한 상태라도 여자 환자는 방치된다. 학교도 하나 둘 문을 닫고, 여자 아이들은 집안에 갇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된다. 이런 곳에서 딸을 키우고 아내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결국 파루크는 다른 대륙으로 가족을 데려다 줄 배를 찾아 거액의 계약금을 건넨다. 그러나 배에 오른 뒤 아내와 딸들과 떨어지게 되고, 배는 산산조각 난다. 파루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램피는 파루크가 난민으로 살고자 하는 그 땅에서 나고 자랐다. 스무 살도 훌쩍 지난 자신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엄마와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고집불통에 온갖 형편없는 농담을 멈추지 않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클로이라는 여학생에게 온 마음을 빼앗겼지만, 불 같은 성미 때문에 그녀를 잃고 만다. 잘 알지 못하는 친부에게서 물려받았으리라 추측하는, 어릴 때부터 유명했던 그 울컥 하는 기질 때문에 말이다. 그 후로 램피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혼란 그 자체다. 클로이의 그림자가 언뜻언뜻 비치는 다른 여자와 충동적으로 사귀게 됐지만 클로이를 마음 속에서 지울 수가 없던 어느 날, 램피는 애처로운 눈으로 볼을 쓰다듬어 주곤 하는 엄마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낮에 어린이집 버스를 운전하고 있지만 램피가 되고 싶은 사람,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꿈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자꾸 엇나가는 일상 속에서 램피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존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요리조리 이끄는 것이 즐겁다 못해 인생의 활력소라고 느끼며 평생을 살았다. 인생의 불씨가 꺼져가는 지금에서야, 존은 돈을 벌려고 시작한 부도덕한 행각들이 자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뒤늦게 후회한다. 어디서부터 이런 삶이 시작된 걸까, 존은 고뇌하며 하느님께 속죄의 기도를 올린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과연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못해 불안해한다. 여섯 살 많은 형 에드워드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찾아온 큰 변화들과 형처럼 되려고 애쓰던 시간들을 되짚어보며 존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소멸하기 전에 모든 것을 용서 받고픈 간절함으로 마음이 답답하다. 존은 과연 죄 많은 삶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세 남자들은 각기 자신의 존재를 뉘일 '집'과 같은 장소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가차없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세 사람은 그 지점에서 조우한다. 저자는 독백, 행동과 대화를 절묘하게 물 흐르듯 섞은 특유의 문체로 세 등장인물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려낸다. 책의 제목처럼, 그들이 찾는 삶의 의미와 경험은 '깊고 고요한 바다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저자 소개>**

도널 라이언(Donal Ryan)은 2015년 런던 도서전에서 EU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다. 데뷔소설 『The Spinning Heart』은 2012년 '아일랜드 도서상 선정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가디언」 데뷔 소설상을 수상하는 한편 맨 부커 상 후보에 올랐다. 2013년에는 'Guardian First Book Award'를 수상했다. 『The Thing About December』는 '케리 그룹 아일랜드 올해의 소설(Kerry Group Irish Novel of the Year)' 최종후보에 올랐다.

# Updates:
# FROM A LOW AND QUIET SEA
# Donal Ryan

*From a Low and Quiet Sea* by Donal Ryan, has been shortlisted for **The Costa Book Awards**. The lyricism in his writing is simply masterly, and I believe that he is a writer who will continue to grow and establish himself as a classic in the future.

*From a Low and Quiet Sea* is set across Syria and Ireland and it is Donal's most ambitious, sweeping story yet - a drama of the interwoven lives of three men, each searching for something they have lost.

Farouk has protected his wife and daughter as best he can from the war that has torn Syria apart. But if they flee, they will lose all they have known of home, all for an intangible dream of refuge in some faraway land across the sea.

John's heart has always beaten to the thrill of manipulating people. But it was never enough. And now it's cold - so very cold - and that heart is slowing down, and he's not sure if God will listen to his pleas for forgiveness.

Three men, searching for some version of home, their lives moving inexorably towards a reckoning that will draw them all together.

Donal Ryan's writing is beautiful and impeccable, and if the characters were more authentic they would be sitting next to you.

**Some general information about Donal Ryan:**

-Donal Ryan is often quoted as one of the best contemporary Irish literary writers
-*From a Low and Quiet Sea* has sold over 22,000 copies in hardback (since pub date March 2018)
-His combined sales across all five titles is over 195,000 copies
-His latest novel *From a Low and Quiet Sea* has sold to 6 territories so far (Albin Michel, Diogenes, Jensen & Dalgaard, Penguin Books US, Aiolos and Shanghai Literature and Art) and in fact, apart from Aiolos, those publishers have acquired all Ryan's work to date.
- He is shortlisted to the Costa Book Awards 2018
-He has won *The Guardian First Book Award*
-He has won the EU Prize for Literature
-He has won the Book of the Year at the Irish Books Awards
-He has been longlisted to the Booker Prize *twice,* including this year, 2018
-He has been longlisted for *The Desmond Elliott Prize*

-He consistently gets outstanding reviews (see below, where I've included a very small selection of brilliant quotes)
-We have three more novels under contract by Donal Ryan

Donal Ryan is from County Tipperary in Ireland. A former civil servant, Donal lectures in Creative Writing at the University of Limerick. This is his fourth novel and we have also published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by him. His first novel *The Spinning Heart* was published by Minimum Fax in Italy many years ago, but we are now looking for a more committed publisher in the Italian market.

**Quotes from reviews below:**

*From a Low and Quiet Sea*
***

'Both **deft and devastating**... **hard-hitting and uplifting**: it serves as an indictment of the care industry, but also as a tribute to the way that humans care for one another' - *The Observer*

'a **superb** novel, from a writer building a body of work the equal of any today... **filled with love and righteous anger**' - *The Guardian*

'...**brutal and beautiful**, carefully crafted portraits, deep and real, tied together, fashioned by a true artist. I absolutely loved it' - Kit De Waal

'The denouement, which comes in breathless bursts, is **devastating**' - *Sunday Times*

*All We Shall Know*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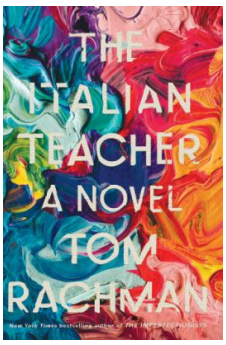
Shortlisted for Novel of the Year at the Irish Book Awards 2016

'An extraordinary portrait of adultery, loneliness and betrayal . . . **One of the finest writers working in Ireland today** . . . worthy of Greek drama . . . . . in the great tradition of tragic fiction, his lonely adulteress coming to grief in the same shadowy spaces as Emma Bovary or Anna Karenina' - *The Guardian*

'**In a word, this book is stunning**' - *The Bookseller*

'**A consummate artist** . . . The denouement offers a satisfying element of redemption . . . a great writer whose steady maturation proceeds apace' - *The Sunday Times*

#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ITALIAN TEACHER
가제 : 이탈리아어 강사
저자 : Tom Rachman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8년 3월 20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Shortlisted for 2018 Costa Book Award
*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Stoner)' 같은 영웅(세상에서 외면 받으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한)을 내밀하게 다룬 소설 / 영국,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판권 계약
* 「월 스트리트 저널」「시애틀 타임스」 등 여러 언론에서 '2018년 가장 기대되는 책'으로 선정
* "강한 흡입력과 섬세함이 느껴지는 소설. 작가는 소재를 완벽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몰입감 있는 이야기에 유머도 가미되어 있다. 심리적으로 미묘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작품." - 「뉴욕타임스 북 리뷰」

얼굴은 제외한 신체의 일부를 소재로 삼아, 과감한 붓 터치와 강렬한 색감으로 캔버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남성성이 돋보이는 그림을 그리는 미국 최고의 화가가 있다. 그의 이름은 베어 바빈스키다. 한 순간에 시선을 사로잡는 자신의 작품만큼 자신과 대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카리스마와 매력이 넘쳐 흐르는 특별한 인물이다. 여자들은 물론, 유명한 미술관의 높으신 분들이나 까다롭기로 유명한 수집가들조차 베어 바빈스키 앞에서는 자진해서 고분고분해진다. 제발 만나달라고, 전시회를 열게 해 달라고, 작품 한 점만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대상, 이런 위대한 예술가가 나의 가족이라면 어떨까? 부모라면? 전 세계 25개 언어로 번역되며 베스트셀러가 된 데뷔작 『불완전한 사람들』로 재능을 인정받은 작가는, 세 번째 작품인 이 소설에서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핀치의 일생을 가만히 따라간다. 작품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완벽함을 추구하고 지루한 것은 못 견디는 사람, '좋은 부모'의 기준에 어느 하나 들어맞지 않는 괴팍한 예술가지만 세상을 놀라게 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그런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아들 핀치의 이야기는 예술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핀치의 엄마인 나탈리는 캐나다 출신의 도예가였다. 좀 더 폭넓은 작품 활동을 펼치기 위해 이탈리아로 와서 6년째 홀로 생활하던 중에 만난 사람이 미국에서 온 베어 바빈스키였다. 베어는 뉴욕에 아내와 세 명의 딸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다. 베어가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나탈리가 있는 로마로 날아와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더위가 가라 앉을 때쯤이면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동안 나탈리는 그의 아이도 홀

로 낳아서 키웠다. 도예가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뿐, 자신이 엄마가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나탈리는 마음씨 좋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육아를 하나 둘 배워나갔다. 마침내 핀치가 다섯 살이 되던 해, 베어는 첫 부인과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나탈리와 결혼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세 식구가 로마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며 살았던 그 시기가 핀치와 엄마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두 사람에게 베어는 늘 함께 있고 싶은 남편이고 아빠였지만 그는 온 세상이 주목하는 위대한 화가였고 누구보다 자기애가 강한 그에게 안정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어떤 비평가보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작품을 대하는 그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곧바로 태워 없애야 직성에 풀리는 사람이었다. 작업실 바깥에 항상 드럼통이 준비되어 있을 정도였다. 그런 성향이 직접 그린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 있는 사람,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핀치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나탈리도 핀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였다. 이탈리아에서 지내던 베어는 핀치가 15세가 된 1965년, 미국에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엄마와 단둘이 남은 핀치는 아버지만큼 뛰어난 화가가 되겠다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급기야 아버지가 있는 미국에 그 동안 그린 그림들을 들고 찾아간다.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고 또 자식들을 거느린 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핀치는 화가로서의 재능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는다.

자신과 엄마를 버린 아버지가 밉고 원망스러우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던 핀치는 베어 바빈스키의 일대기를 직접 쓰기로 하고, 진로를 바꿔 작가가 되기 위해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 큰 좌절을 경험한 핀치는 영국으로 건너가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버지의 관심은 그제야 베어에게로 향한다. 베어에게 거장으로 살면서 느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내색조차 할 수 없는 불안감, 작품을 계속 그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의구심을 모두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핀치가 된 것이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 총 다섯 명의 여성과 결혼하고 핀치를 포함하여 열일곱 명이나 되는 자식을 낳고도 믿음직한 아이는 핀치 하나였다. 전과 다른 시선으로 아버지를 대하면서, 핀치는 지나간 세월을 찬찬히 되돌아본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버지에게 눌린 사람이 자기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 누구보다 예술가로 성공하고 싶었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뮤즈였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 베어 바빈스키는 이탈리아에 살던 시절 그의 세계적인 작품들을 줄줄이 탄생시켰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더 이상 영감을 얻지 못한다고 느낀 순간 어머니와 자신의 곁을 냉혹히 떠나버렸고 이후에도 숱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엄청난 작품을 여럿 남길 수 있었다면, 그런 무절제한 생활도 다 용납되는 일일까? 예술이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 베어가 죽고 그의 작품들을 관리하게 된 핀치는 자신이 평생 경험하며 고민하게 된 이 문제를 남은 아버지의 작품을 통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풀어내기 시작한다. 예술의 목적, 명성과 유명세의 의미와 그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 가족에 관한 깊은 고찰이 담긴 소설이다.

<저자 소개>

톰 라크만(Tom Rachman)은 25개 언어로 번역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The Imperfectionists』(2010)를 쓴 작가다. 두 번째 소설 『The Rise & Fall of Great Powers』(2014)도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AP 외신 편집자, 로마 특파원으로 근무했다.

## Updates:
## THE ITALIAN TEACHER
## Tom Rach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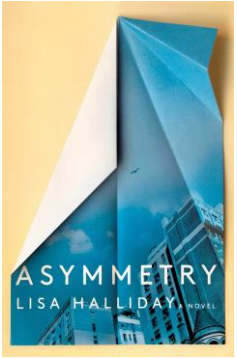
Tom Rachman's THE ITALIAN TEACHER **has been shortlisted for the 2018 Costa Award for Best Novel**. The Costa Award is considered perhaps the UK's most significant – and sales-boosting – literary prize after the Man Booker, and has in recent years been awarded to Ali Smith, Kate Atkinson, Hilary Mantel and Sebastian Barry. The winner will be announced on January 7th, 2019.

Tom's third novel was published to near-universal acclaim earlier this year, called "**delicious ironic and deeply affectionate**" by the Washington Post, "**a psychologically nuanced pleasure**" by the New York Times, "**unforgettable**" by USA Today, and "**his most impressive [novel] yet**" by the Financial Times.

Rights have so far been licensed in the following territories:

**UK**: riverrun; **Canada**: Doubleday; **Denmark**: Politikens; **Germany**: dtv; **Italy**: La nave di teseo; **Poland**: Znak.

# 추가 업데이트




제목 : ASYMMETRY
가제 : 비대칭
저자 : Lisa Halliday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18년 2월 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New York Times 100 Notable Books
* NPR Best Books of 2018 in the "Seriously Great Writing" category
* Publishers Weekly Top 10 Books of the Year
* Amazon Best Books of 2018
* TIME Magazine Best Fiction of 2018
* O Magazine Favorite Books of 2018 (see attached)
* Kirkus Best Fiction of 2018

**작가를 꿈꾸는 20대 여성과 입국을 거절당한 청년, 전혀 다른 듯 묘하게 닮은 두 이야기**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비대칭'이라는 제목에 담긴 이 책은 두 소설의 내용도 문체도 아주 다르지만, 차례로 읽다 보면 두 이야기 사이에 미묘하게 형성된 연결고리가 느껴진다. <어리석은 짓(Folly)>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편집 보조로 일하는 20대 앨리스는 나이가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인 노작가를 만나고, <광기(Madness)>라는 제목의 두 번째 소설에는 2008년, 런던 히스로 공항에 붙들린 아마르라는 청년이 등장한다.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이야기는 미국 뉴욕에 살고 앨리스가 겪는 일들이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과 입국 심사장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아마르가 이라크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접점을 찾는다. 그러나 드러나는 공통점은 시작에 불과하다.

앨리스가 남자를 만난 곳은 '미스터 소프티'라는 아이스크림 가게 근처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지겨워질 때쯤, 머리가 하얗게 샌 그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옆에 앉았다. 앨리스는 책 하나를 들고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아 괴로워하면서 언젠가는 자신도 직접 책을 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앨리스가 읽던 책에 관심을 보였고,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흥미로운 시선을 던졌다. 앨리스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남자가 옆에 앉을 때부터 이미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아마 그 공원을 지나는 사람 대부분이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다. 스물다섯 살,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 일을 하

는 앨리스가 일하는 사무실 복도에도 남자의 사진과 사진기사가 붙어 있을 정도였다. 퓰리처 상을 몇 번이나 받은 그 유명한 작가는 그 우연한 만남 이후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앨리스와 몇 번 더 마주친 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거대한 건물에 자리한 남자의 집은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남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를 물잔부터 건네며 마시라고 했고, 다짜고짜 앨리스의 가방 검사부터 했다. 유난히 큰 침대와 뉴욕의 하늘 풍경이 멀리까지 내다보이는 그 은밀한 남자의 거처에서, 두 사람의 애매모호한 관계가 그렇게 시작됐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앨리스를 '인어'라 부르기 시작한 남자는 고급 버건디 색 가죽 지갑에 이어 시계, 향수 등 갈 때마다 선물을 안겨주었고, 건강 문제로 자신은 먹지도 못하는 와인과 쿠키를 매번 앨리스를 위해 준비했다.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리고 서로에게 바라는 건 무엇일까?

**돈과 권력, 명예, 재능, 행운과 부당한 현실이 만들어내는 세상살이의 도박 같은 덧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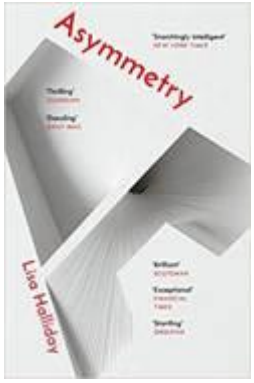
두 번째 이야기, <광기>는 아마르가 로스앤젤리스에서 탄 비행기에서 내려 히스로 공항에서 끝없는 질문에 시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입국 심사원은 아마르가 영국에 단 이틀만 머물 것이고, 해외특파원으로 와 있는 알래스테어 블런트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을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도 그 다음 일정까지 묻기 시작했다. 아마르는 이스탄불로 가서, 디야르바키르 주를 거쳐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구에 들어갈 거라고 순순히 대답했다. 거기에 형이 있기 때문이다. 심사원은 이라크를 방문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캐물었고, 아마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제 졸업논문을 다 썼으니 미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볼 거라고 대답했다. 전공까지 이야기했지만, 그는 아마르를 보내주지 않았다. 영국에 와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10년 전 취업비자로 와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하자, 왜 여권에 도장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여권이 망가지는 바람에 새로 바꿔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급기야 이틀간 영국에 머문 뒤 이스탄불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전자티켓이라 아직 인쇄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아마르는 완전히 수상한 인물로 찍히고 말았다. 2008년의 마지막 주말을 공항 대기실에서 보내야 할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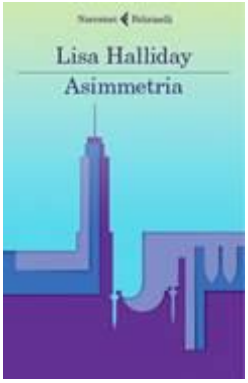
앨리스와 아마르, 서로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돈과 권력, 명예, 재능, 행운, 부당한 일들과 역사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균형이 맞지 않고 비대칭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어느 순간 연장선상에 놓인 것처럼 공통점이 느껴지는 두 소설은 인간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어쩔 수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가끔은 얼마나 도박 같은 덧없음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지 잔인할 정도로 또렷하게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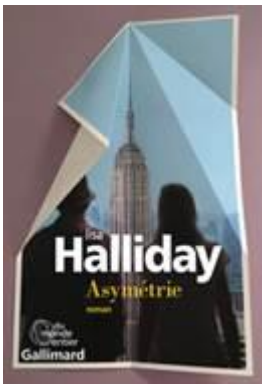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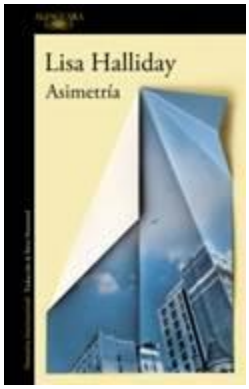
리사 할리데이(Lisa Halliday)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런던의 출판 에이전시 '와일리 에이전시(The Wylie Agency)'에서 근무했다. 2005년에 발표한 첫 소설 『Stump Louie』은 「Paris Review」에도 소개됐다. 현재는 밀라노에 살면서 프리랜서 에디터 겸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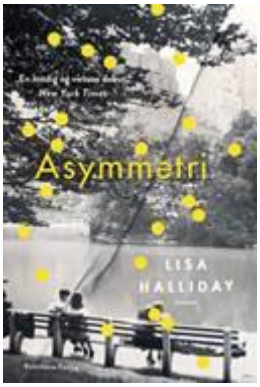
# Updates:
# ASYMMETRY
# Lisa Halliday












Over the course of 2018, ***ASYMMETRY* hit bestseller lists in Germany and Italy with several of Lisa's international publishers going back to press**. You can see a range of the international jackets above.

International publishers of ASYMMETRY: Granta (*UK & British Commonwealth*), Atlas Contact (*The Netherlands*), Feltrinelli (*Italy*), Hanser (*Germany*), Gallimard (*France*), Alfaguara (*World Spanish*), Politikens (*Denmark*), Nordstedts (*Sweden*), Beijing Imaginist (*China*), Literackie (*Poland*), Relógia D'Àgua (*Portugal*), Curtea Veche (*Romania*), Domingo (*Turkey*).

It's been exciting and gratifying to see Lisa Halliday's much-acclaimed debut novel ASYMMETRY appear on a growing number of *Best Of* lists for 2018:

Just this morning it was chosen as one of the ***New York Times*' 5 Best Novels of the year!:**

In "Asymmetry," two seemingly unrelated sections are connected by a shocking coda. The first, "Folly," is the story of a love affair. It nar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lice, a book editor and aspiring writer in her mid-20s, and Ezra Blazer, a brilliant, geriatric novelist who is partly modeled on Philip Roth. The second section — "Madness" — belongs to Amar Jaafari, an Iraqi-American economist who is being detained at Heathrow. Halliday's prose is clean and lean, almost reportorial in the style of W.G. Sebald. This is a first novel that reads like the work of an author who has published many books over many years, and it manages to be, all at once, a transgressive roman à clef, a novel of ideas and a politically engaged work of metafiction.

The other novels are: *The Great Believers* by Rebecca Makkai, *There There* by Tommy Orange, *The Perfect Nanny* by Leila Slimani and *Washington Black* by Esi Edugyan.

*ASYMMETRY* has also been hailed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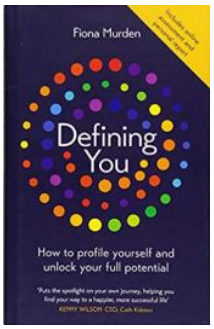
- *New York Times* 100 Notable Books
- NPR Best Books of 2018 in the "Seriously Great Writing" category
- *Publishers Weekly* Top 10 Books of the Year
- *The Oregonian* 19 Best Books of the Year
- Amazon Best Books of 2018
- TIME Magazine Best Fiction of 2018
- *O* Magazine Favorite Books of 2018 (see attached)
- Kirkus Best Fiction of 2018

And in the UK…

- *Evening Standard Best Books of 2018*
- *The Times Literary Supplement Book of the Year*

*ASYMMETRY* has been shortlisted for the prestigious *Center for Fiction First Novel Prize* which will be awarded the week after next.

# NON-FICTION




제목: DEFINING YOU
가제: 나를 정의하라
(부제: 자신을 프로파일링하고 잠재력을 깨우는 법)
저자: Fiona Murden
출판사: Nicholas Brealey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4월 26일
분량: 272 페이지
장르: 심리학

* **"혼돈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익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 - 멜 카슨(Mel Carson), 마이크로소프트**
* **"이전에 알지 못했던 통찰을 제공하고 그것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준다. 리더십, 호기심을 반드시 키워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읽어야 하는 책" - 전 스코틀랜드 럭비팀 주장, School for CEOs 공동 창립자 데이빗 솔(David Sole)**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다. 주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한정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서 범인의 윤곽을 좁히고 가능하면 결정적인 범인의 특징을 집어내는 일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하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맡은 사람들을 프로파일러라고 칭한다. 과학수사대가 등장하는 국내외 드라마, 영화나 실제 사건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나듯이 프로파일러는 한 사람의 특징을 포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포착해 나간다. 과학적인 정보와 심리분석,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서 다른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찾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직접 적용해보면 어떨까? 주관적인 시선을 거둬내고 객관적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 누군가 그렇게 프로파일링을 한다면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나에게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까? 심리학자인 저자는 이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심리검사와 자가분석 기회를 이 책에서 제공한다. 독자가 총 360가지 평가로 이루어진 온라인 정신측정 검사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직 활용하지 못했거나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잠재력을 찾아 더 성공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특징들, 가령 무언가를 추진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과 성과나 기분, 실력을 더 원만하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상세히 찾을 수 있다.

잠재력을 찾아 활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저자는 가능성과 성장이라고 설명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찬찬히 살펴보고, 명확히 그 기회를 찾아서 세상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올바르게 찾고 개성을 스스로 아는 것, 그래서 강점은 더 키우고 약점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동기를 알아야 한다. 왜 자신이, 그리고 주변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한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는 흔한 표현처럼, 스스로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야기할 수 없다면 어떠한 결정도 스스로에게 유익하게, 홀가분하게 내릴 수 없다. 저자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지지부진한 성과를 더욱 향상시키고 측정 결과를 직접 해석해서 무엇이 자신에게 더 나은 방향인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어린 시절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의 자신까지 걸어온 길을 쭉 되짚어보는 성찰과 정신측정, 피드백 등을 통해 '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성찰과 통찰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을 종합하여 자신을 정의하고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의 순서로 이어진다.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상세한 실천방안과 현실적인 조언을 얻어 직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좀 더 마음 편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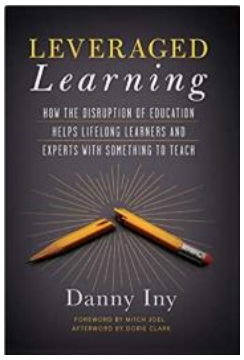
**<목차>**

서문 / 머리말 - 심리학자와 함께
1부. 성찰
1.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라
2. 당신의 이야기
3. 성장
4. 삶의 의미
2부. 수집
5. 정신측정
6. 통찰력 획득
3부. 실행
7. 나의 정의
8. 나의 최적화
결론
신념 테스트

**<저자 소개>**

피오나 머든(Fiona Murden)은 영국심리학회 소속 공인 심리학자이자 성과 코치로 활동해 왔다. 지난 19년간 다국적 회사,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정책입안자, 스포츠인 등과 함께 잠재력 향상을 위한 방법을 지도했다. 워릭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동 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어 런던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제목 : LEVERAGED LEARNING
가제 : 레버리지 학습
저자 : Danny Iny
출판사: Ideapress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10월 2일
분량 : 250 페이지
장르 : 교육




* "교육에 불고 있는 혁신의 방향을 짚어주고, 복잡하고 전문용어로 가득한 이론을 간단하고 호기심 가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설명한다" - 『The Best Place to Work』의 저자 론 프리드먼
* "저자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직원들이 더 큰 역량을 발휘하고 주어진 업무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촉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 Bold Approach CEO, 『Persuasion』의 저자 데이브 라카니

대학 졸업장이 성공을 보장하는 확실한 보증수표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대다수가 마치 6·25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것처럼 반응한다. 대학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어떠한 성공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혹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입학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 무려 유치원 때부터 선행교육과 '특별한 학습 기회'를 찾아 돈과 시간,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다. 아무 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대학 졸업장을 취득하느라 청년들 대다수가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 큰 빚을 짊어지지만 산업계가 원하는 실무적인 지식은 또 달라서 운 좋게 직장을 찾는다고 해도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배움과 학습, 교육을 이어나가야 한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교육자인 저자는 현대 교육의 실패를 20세기와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진 엄청난 기술 발전과 사회의 대대적인 변화가 교육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교육을 받는 사람, 제공하는 주체는 물론이고 더 넓은 차원에서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창구와 그러한 창구를 찾고 이용하는 사람 전체가 모두 대폭 바뀌었지만 여전히 수백 년 전에 처음 등장한 교육 방식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꼭 맞는 교육은 무엇일까? 교육자이자 기업가인 저자는 '평생 학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 상황에서 누구나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필요한 지식을 경제적 부담 없이 습득할 수 있는 '레버리지 학습'을 이 책에서 제안한다.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들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교육이 근본적인 목표인 '더 나은 삶'을 학습자 모두가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술은 무엇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저자는 먼저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지식이 근로자와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 왔는지 살펴본다. 이어 교육 시스템이 실패한 이유를 알아보고,

개개인의 학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행동 패턴을 설명하고 학습 효율을 촉진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무엇을 학습하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학습의 세 가지 단계와 행동이 아닌 정신적으로 길들여야 할 학습 습관에 관한 정보와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과정 중 유익한 것과 피해야 하는 유형을 구분하는 법도 알려준다. 이처럼 학습자의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와 더불어, 저자는 교육자의 시각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함께 제시한다. 저자가 수천 명의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자를 통해 효과를 확인한 교육 방식과 올바른 커리큘럼 수립 방법, 교육 과정의 유효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평가 방법, 모든 학생이 학습을 통해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비용 효율적으로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추적하고 세밀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을 돕는 방법 등 폭넓은 정보가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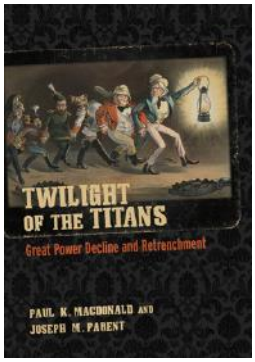
학습자와 교육자 모두가 평생 무시할 수 없는 학습의 길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줄기가 될 핵심을 짚어주는 교육서다.

**<목차>**

서문 –“나의 배움에 학교가 방해가 되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았다”
머리말 – 발전(그리고 교육)의 이야기
1부. 레버리지 학습은 왜 필요할까 (왜 교육이 제 기능을 못할까, 무엇을 바꿔야 할까)
1. 현대 교육이 무익하고, 과도하게 비싸고, 편재하는 이유
2. 가속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
3. 학습의 변화 양상
4. 새로운 교육의 경제학
5. 전문가를 통한 학습
2부. 레버리지 학습이란 무엇이고, 학습 방법은 무엇일까 (세계적 수준의 교육 요소)
6. 지식: 학습의 지름길
7. 통찰력: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의 만남
8. 끈기: 점점 힘들어져도 계속 해나가는 법
9. 훌륭한 교육과정의 설계
10. 레버리지 학습의 여섯 단계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저자 소개>**

대니 아이니(Danny Iny)는 교육자이자 기업가, 비즈니스 교육업체 Mirasee의 창립자 겸 CEO다. 15세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캐나다 퀸스 경영대학교를 졸업한 후 맥길 대학교, 예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저서로는 『Leveraged Learning』, 『Teach and Grow Rich』, 『The Audience Revolution』, 『Engagement from Scratch! 』 등이 있다.




제목 : TWILIGHT OF THE TITANS
가제 : 거인의 몰락
(부제 : 거대한 힘의 몰락과 긴축정책의 힘)
저자 : Paul K. MacDonald, Joseph M. Parent
출판사: Cornell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8년 4월 15일
분량 : 276 페이지
장르 : 역사/정치

* "미국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위험성과 핵심 권력이 과연 이성적으로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에 관한 보편적인 회의적 견해에 가장 강력하게 반박하는 책" - 다트머스 대학교 교수 윌리엄 C. 홀포스(William C. Wohlforth)
* "거대 권력이 쇠퇴할 때 긴축 정책을 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의문에 중점을 두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국제정치 분야의 학문적인 탐구는 물론 중국의 성장세에 대응한 미국의 반응 방식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 텍사스 A & M 대학교 국제정치 교수 크리스토퍼 레인(Christopher Layne)

두 발 더 나아가기 위해 우선 한 발 후퇴해야만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이 선택의 기로에서 후퇴를 선택하기란 그리 쉽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 가도만 달려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망설이게 된다. 그러므로 개개인에게도 힘든 이 선택이 세계적인 패권국의 위치에 오른 한 국가에게는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일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팽팽한 권력 경쟁만 보더라도 아주 자그마한 후퇴의 징후는 외교적으로 치명적인 약점 혹은 드러내지 못할 더 큰 비관적 상황을 암시하는 신호로 여겨질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고, 선두 자리가 새로 도전장을 내민 신흥 권력에 의해 흔들리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권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왕창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최대 권력을 지녔던 주체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까? 넘어지는 찰나 다시 균형을 잡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까? 정치학 교수인 두 저자는 1970년부터 실제 국제 무대에서 벌어진 거대 권력의 전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쇠퇴기에 접어든 권력이 그대로 무너져 사라진 경우와 다시 활력을 얻어 되살아난 경우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바로 권력이 기울어질 때 긴축정책을 택한 경우에만 회생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실패와 쇠퇴의 징후가 뚜렷할 때 더더욱 고자세로 일관하는 강성 발언과 위협, 도발, 예방 목적의 전쟁을 택할 경우 권력은 더 명확한 소멸의 길로 접어드는 반면 이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밀어붙이는 대신 중도적 방안을 찾아 모든 면에서 최대한 긴축하는 동시에 다른 권력의 도움을 받고 동시에 자국의 망가진 기능을 회복하는 길을 택할 때 부활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두 저자는 1872년과 1908년에 두 차례 쇠퇴 위기에 직면한 대영제국을 비롯해 비슷한 시기 러시아와 프랑스의 위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되살아나는데 성공한 거대 권력이 실제로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한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지, 수많은 정책적 방안 중에 공통적으로 어떤 방향을 택하는지, 기존의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롭게 그 자리를 차지하러 나선 신흥 권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쇠퇴기에 접어든 국가가 선택한 방안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상세히 알아본다. 이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린 권력이 긴축 정책을 택하는 것이 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주체만 달라질 뿐 끊임없이 발생하는 권력 이동의 상황을 처음부터 새롭게 인지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생사가 좌우되는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서 모래처럼 권력이 빠져나갈 때 눈 앞에 놓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의 효용성을 진단한 결과를 생생한 역사로 입증된 사례 연구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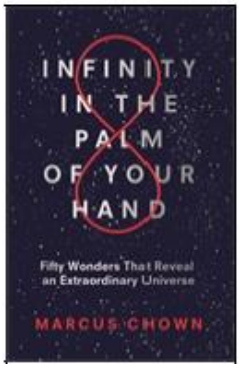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 절박한 시기, 절박한 방법: 쇠퇴기에 관한 논의
2. 추진력을 얻기 위한 묘책: 긴축의 논리
3. 국가의 운명: 숫자로 인한 쇠퇴
회복 사례에 관한 연구
4. 시간 싸움을 벌인 패권국: 1872년 대영제국
5. 깨어난 패권국: 1908년 대영제국
6. 무너지는 회전목마: 1888년 러시아
7. “주사위는 던져졌다”: 1893년 프랑스
8. 차르의 권력: 1903년 러시아
9. 유토피아적 배경: 1925년 프랑스
결론: 재장전의 수단으로서 긴축 정책의 기능

**<저자 소개>**

폴 K. 맥도널드(Paul K. MacDonald)는 웰슬리 칼리지 정치학 부교수다. 저서로는 『Networks of Domination』이 있다.

조셉 M. 패런트(Joseph M. Parent)는 노트르담 대학교 정치학 부교수로 저서로는 『Uniting States』와 공저자로 참여한 『American Conspiracy Theories』가 있다.




제목 :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가제 : 손바닥 안의 무한한 세상
(부제 : 우주의 놀라움이 담긴 50가지 경이로운 현상)
저자 : Marcus Chown
출판사: Michael O'Mara
발행일: 2018년 10월 4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교양과학

***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평소에 과학 도서는 잘 읽지 않는 사람에게 이상적인 책" – 과학저술가 브라이언 클렉(Brian Clegg)**
*** 「선데이 타임스」 '올해의 과학 도서상' 수상 작가가 들려주는 놀랍고 신비한 과학적 현상들**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지루한 개념을 유난히 재미 있게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과학이든 역사든, 수학이든 암기하기 쉬운 노래를 만들어서 학생들 앞에서 목청 높여 부르거나 기이한 현상, 혹은 누구나 아는 만화 캐릭터, 영화배우, 연예인의 특징을 예로 들며 특정한 이론이나 개념을 알려주는 선생님들의 공통점은 친근감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일단 읽기도 싫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고개부터 내젓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그 거부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모색한 결과일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독자들을 하품만 해대는 가련한 학생들로 보고 과학을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재미 있게 가르쳐준다. 생물학, 생리학, 천문학 등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최신 이론과 놀라운 현상을 뜬금없는 사례와 비유를 들며 일단 귀가 솔깃하게 하고 언뜻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 현상 뒤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이어서 설명한다. 과학이라면 일단 질색인 사람들, 혹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해보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즐거운 독서가 될 만한 책이다.

머나먼 우주 저 멀리, 우리가 아는 은하수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은하계에 태양과 믿기지 않을 만큼 똑같이 생긴 별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태양을 닮은 별 주변에 지구와 정말 많이 닮은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에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존재가 있다.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 글을 동시에 읽고 있다, 그것도 같은 속도로 같은 부분을…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 하겠지만, 저자는 우리가 사는 은하계 외에도 우주에는 무한한 수의 또 다른 은하계가 존재하며 그 무한한 은하계마다 우리를 복사한 것처럼 쏙 빼 닮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 표준이론의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실제 가능한 일로 이론까지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와 '볼 수 없는 우주'라는 새로운 개념이 담겨 있다. 즉 우주 전체의 범위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2.5 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며, 97.5 퍼센트는 아예 볼 수조차 없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350년간 지구의 무수한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애쓴 것들,

그래서 밝혀냈다며 온 세계가 환호하고 상을 주고 기뻐한 내용들이 우주 전체의 미스터리에 비하면 얼마나 미미한지 깨닫게 한다. 저자는 이처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로 과학 교과서에 나열된 지루한 이론들을 흥미롭게 설명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몸 전체 빈 공간을 모두 없애고 압축백에 오리털 이불을 압축하듯이 남은 물질만 꽉꽉 뭉치면 지구상 인구 전체가 전부 각설탕 하나 크기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 바나나는 태양빛을 받고 자란 식물인데 왜 뜨겁지 않느냐는 어린아이의 발상 같은 질문에 담겨 있는 태양의 온도와 에너지에 관한 진실 등 재미 있고 귀를 솔깃하게 하는 50가지 이야기들이 각 분야별로 정리된 특별한 과학책이다.

**<목차>**

서문
1부. 생물학적 현상 (1-6)
1. 너도 있고 나도 있는 실 - 우리는 세 번째 버섯이다
2.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 - 13개의 성을 가진 끈적한 균류
3. 산소의 속임수 - 로켓연료로 움직이는 아가들 (이하 생략)
2부. 인간과 관련된 현상 (7-14)
7. 상호작용, 상호작용, 상호작용 - 14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돌도끼 디자인이 안 바뀐 이유
8. 할머니의 이점 - 생리를 하는 생물 종은 단 세 가지
9. 사라진 부족 (이하 생략)
3부. 지구와 관련된 현상 (11-14)
4부. 태양계와 관련된 현상(15-24)
5부. 근원적인 현상(25-35)
6부. 외계와 관련된 현상 (36-40)
7부. 우주와 관련된 현상 (41-50)

**<저자 소개>**

마커스 초운(Marcus Chown)은 수상 경력이 있는 저술가이자 방송인으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전파 천문학자로도 활동했다. 현재 「뉴 사이언티스트」의 천문학 관련 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2017년「선데이 타임스」'올해의 과학 도서'로 선정된『The Ascent of Gravity』와 2010년 영국 왕립과학회 도서상 결승에 오른 『We Need to Talk About Kelvin』을 비롯해 『What A Wonderful World』, 『Quantum Theory Cannot Hurt You』 등이 있다.

제목 : HOW TO COME ALIVE AGAIN
가제 : 다시 살기 위해
저자 : Beth McColl
출판사: Unbound
발행일: 2019년 4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에세이/정신건강

***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 폭소를 자아내면서도 따뜻하고, 현명하고, 놀랍다. 일년 내내 계속 다시 읽을 것 같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Life-Changing Magic of Not Giving a F**K』 의 저자 새라 나이트**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용히 한 사람의 생을 갉아먹는 이 보이지 않는 괴물을 물리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들도 쏟아지고 있다.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낙인이 찍히는 일도 많이 줄어든 만큼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꽤 넓어졌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우울하고, 대다수의 '멀쩡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분전환의 방법들을 시도조차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둠이 내려 앉았을 때의 심정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만큼와 닿는 조언도 없을 것이다. '20대 글 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저자는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지난 날과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한 일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괴물과 맞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같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 저자의 깊은 고민이 그대로 느껴지는 만큼 읽는 사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만 결코 과장된 허식이 없고, 충분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이지만 의학적으로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자신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패배는 아닌 저자의 이야기는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게 하고 때로는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의학적으로 우울증으로 엄밀히 진단 받은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만큼 깊은 어둠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심각하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헤쳐 나가보자고 이야기하는 진솔하고 편안한, 동시에 참신하고 값진 조언이 가득한 책이다.

저자는 우울증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지행동치료와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받아 왔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의사와의 대화를 통해 지금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방식을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라 기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이와 비슷하지만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과정은 저자가 경험한 다른 일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불안과 우울 때문에 괴로운 모든 사람이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 스스로가 제

일 잘 알게 마련이고,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하는지도 그 어떤 전문가나 조언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저자는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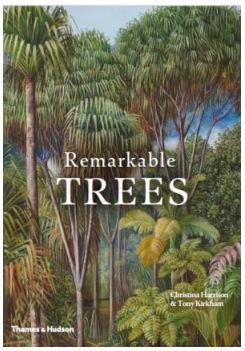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굴기를 바라고, 심지어 부당하게 강요한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는 식의 냉소적인 시선,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든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다들 밥 먹는 시간에 다들 선택하는 메뉴로 밥을 먹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쉽게 드러내지도 못한 채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주변의 시선 따위 당당히 이겨내고 아주 희미한 빛일지라도 그 빛을 보면서 조금씩 일어서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마치 속 깊은 친구가 곁에서 들려주는 듯한 애정 어린 조언과 진솔한 이야기로 꽉 채워진 책이다.

**<목차>**

머리말
1부. 사라진 빛
 지겹도록 아팠다 / 우울증 / 우울증이 아냐 / 불안 / 불안한 게 아냐 (이하 생략)
2부. 희미한 불빛
 정말 좋은 날은 어떤 날일까 / 회피, 그리고 회피의 저주 / 이기적인 방어
 타인의 조언 / 몇 가지 용감한 일 (이하 생략)
3부. 떠오른 태양
 이미 잘 하고 있는지도 몰라 / 자기 인식 / 잘 무너지자 / 치료 (이하 생략)
4부. 일식
 안 좋은 자기관리 / 부정적인 생각을 교체하는 것 / 자해 / 자해가 아냐 (이하 생략)
5부. 조명
 정신적으로 아플 때 데이트를 하면: 1부, 2부 / 파트너에게 마땅히 요구해도 되는 것들
 바꿀 수 없는 건 견디자 / 자신의 아군이 되는 것 / 회복의 재정의 (이하 생략)
6부. 참고자료

**<저자 소개>**

베스 맥콜(Beth McColl)은 「Dazed & Confused」 매거진과 「Brooklyn Magazine」, 「Gradient」, 「Ask-Men」에서 컬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제목 : REMARKABLE TREES
가제 : 놀라운 나무의 세계
저자 : Christina Harrison, Tony Kirkham
출판사: Thames & Hudson
발행일: 2019년 (공동제작)
분량 : 256 페이지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240점)
장르 : 과학

*** 3만 종 이상의 식물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영국 큐 왕립식물원의 두 전문가가 선정한 60여 종의 나무에 관한 생태학적, 문화적 역사적 정보와 아름다운 일러스트**

빌딩이 숲의 나무처럼 빼곡히 줄지어선 도심에서 거리 곳곳을 차지한 진짜 나무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그나마 나무가 있어 연한 초록빛 싱그러운 잎을 보고 가을이면 노랗고 빨갛게 변하는 색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도 더 생생하게 인지하고, 스마트 폰이며 컴퓨터, TV 화면만 응시하던 눈을 쉴 수도 있다. 나무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항상 특별한 존재로 우리 곁에 함께 했다. 그 자체로도 멋있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나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수도 없이 제공해 왔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 먹고 마실 수 있는 식량,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아물게 하는 성분들, 요리에 빛을 더하는 향신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송진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표현이 전혀 아깝지 않은 나무의 효용성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간이 주로 생활하는 환경이 도시가 된 현대 사회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을 조절하고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는 생태학적인 든든한 방어막의 기능까지 나무가 맡고 있다. 문화적인 의미도 빼놓을 수 없다. 전 세계 다양한 종교와 민속 신앙에서 특정한 나무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고 뛰어난 예술가들의 창작 욕구에 불을 지피는 귀중한 소재가 되었다. 두 저자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식물원으로 꼽히는 영국 큐 왕립식물원을 속속들이 잘 아는 전문가답게 이 책에서 이처럼 다 열거하기도 힘든 나무의 가치와 놀라운 특성, 역사를 60여 종의 나무를 중심으로 상세히 들려준다. 페이지마다 나무가 아름답게 묘사된 멋진 일러스트와 사진 자료가 풍성하게 포함되어 있어 두 전문가가 전하는 흥미로운 나무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는 총 60,000여 종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로 잘 자라는 지역도, 크기도, 형태도 모두 다른 만큼 나무마다 인간의 역사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두 저자는 이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인간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준 60여 종의 나무를 선정하여 이 책에서 소개한다. 각 장은 우리가 이 나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기준으로 나뉘고, 각 나무마다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특징과 과학적인 계통분류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문화적, 역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우리가 소설이나 다큐멘터리, 유명한 관광지, 혹은 슈퍼마켓에서

흔히 접하고 많이 들어본 익숙한 나무들도 있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희귀하고 특별한 나무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인간이 나무를 바라본 시선과 어떤 나무의 어떤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때로는 잔인하게, 때로는 창의적으로, 또 때로는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며 나무로 집을 짓고, 씨앗이나 열매를 얻고, 병을 치료하고, 벌레나 마귀를 쫓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다채로운 활용도만큼이나 전 세계 예술가, 식물학자들의 호기심과 예술적, 탐구적 열정을 키운 나무의 이야기와 그 결실로 탄생한 작품들, 연구결과들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나무, 더 나아가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깨달음을 새삼 일깨워줄 이야기와 정보가 가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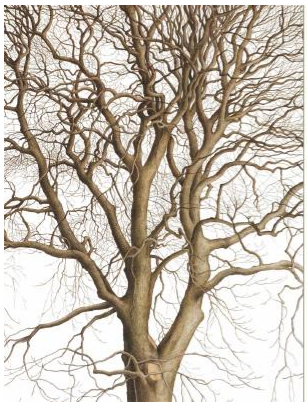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건축, 창작활동
잉글리시 오크 / 참오동나무 / 마호가니 / 아까시나무 (이하 생략)
축제, 축하 행사
계피나무 / 올리브나무 / 감나무 / 카카오나무 / 육두구 / 사과나무 (이하 생략)
치료, 제거
퀴니네 / 스트리크닌 / 멀구슬나무 / 만치닐 나무 (이하 생략)
몸과 영혼
인도 반얀 무화과 나무 / 바오밥 나무 / 안나토 나무 / 유향나무 (이하 생략)
세상의 경이로움
자이언트 세콰이어 / 브리슬콘 소나무 / 당마가목 / 메타세콰이어 (이하 생략)
위험과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들
나한송 / 라모스마니아 / 뉴질랜드 크리스마스 트리 / 세인트헬레나 고무나무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크리스티나 해리슨(Christina Harrison)은 큐 매거진(Kew Magazine) 편집자로 대학원에서 정원의 역사를 공부한 후 생물학자, 식물학자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Bizarre Botany』가 있다.

세계적인 나무 전문가인 토니 커크햄(Tony Kirkham)은 영국 왕립식물원 수목원 책임자를 맡고 있다.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나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저서로는 공저자로 참여한 『Wilson's China: A Century On』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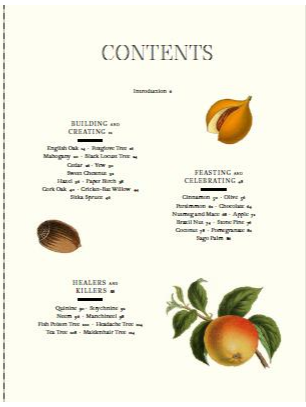


Christina Harrison
Tony Kirkham

REMARKABLE

# TREES

Thames & Hudson
*In association with the Royal Botanic Gardens, Kew*



CONTENTS

Introduction 6

BUILDING AND CREATING 10
English Oak 14 · Ringtree Tree 16
Mahogany 18 · Black Locust Tree 20
Cedar 22 · Yew 24
Bean Chestnut 26
Hazel 28 · Paper Birch 30
Cork Oak 32 · Crack-Bat Willow 34
Sitka Spruce 36

FEASTING AND CELEBRATING 38
Cinnamon 40 · Olive 42
Persimmon 44 · Chocolate 46
Nutmeg and Mace 48 · Apple 50
Brazil Nut 52 · Stone Pine 54
Coconut 56 · Pomegranate 58
Sago Palm 60

HEALERS AND KILLERS 62
Quinine 64 · Strychnine 66
Neem 68 · Manchineel 70
Fish Poison Tree 72 · Headache Tree 74
Tea Tree 76 · Madagascar Tree 78

BODY AND SOUL 80
Indian Banyan Fig 82 · Baobab 84
Arnnato 86 · Frankincense 88
Blue Gum 90 · Dragon's Blood Tree 92
Soap Bark Tree 94 · Ebony 96
Mulberry 98 · Coffee Tree 98

WONDERS OF THE WORLD 100
Giant Redwood 102 · Bristlecone Pine 104
Mountain Ash 106 · Dawn Redwood 108
Alerce 110 · Quaking Aspen 112
Douglas Fir 114 · Handkerchief Tree 116
Kauri 118 · Cocoa de Mer 120
Durian 122 · Candlestick Banksia 124
Mangrove 126

THREATENED AND ENDANGERED 128
Pedicuy 130 · Cuft Marron 132
New Zealand Christmas Tree 134
St Helena Gumwood 136 · Wollemi Pine 138
Chinese Silver Fir 140 · Franklin Tree 142
Juniper 144 · Monkey Puzzle 146

Further Reading 148
Sources of Illustrations 150
Acknowledgements 151
Index 152

## Olive Tree

*Olea europaea*

The European olive (*Olea europaea*) has played an important part in human history. In addition to the many uses its fruit, oil and wood have been put to, it also has great symbolic significance, epitomizing all the blessings of life – longevity and fertility, nourishment, hope, wisdom and wealth. The olive branch as an emblem of peace has ancient roots, perhaps best known from the story of Noah and the Ark in the Bible, and is still universal today. Olive branches are represented on the flag of the United Nations, where they encircle a map of the world, and also on the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on the flags of Cyprus and Eritrea. A small golden olive branch was left on the Moon by astronauts of NASA's Apollo 11 mission, representing a wish for peace for all the people of Earth.

According to Greek myth, in a contest between Athena and Poseidon to decide who would be the patron deity of Greece's principal city, the goddess planted an olive tree sapling. Her gift was so useful to the inhabitants that the was chosen, and hence the city became known as Athens. So highly valued was the olive that its oil was presented as a prize to the victors in athletics in the ancient Athenian games, and an olive tree still grows on the Acropolis as a symbol of this foundation story.

*Olea europaea*, its subspecies and numerous domestic cultivars all thrive in the baking sun and dry heat of the Mediterranean, where they often grow on thin limestone soils. These small but tough evergreen trees, which rarely exceed 10–15 m (33–50 ft), have narrow wavy leaves that help resist precious moisture. Olive trees can withstand severe storms and even wildfires, often regrowing from the base if not too badly damaged. Due to the harsh conditions, olives grow slowly but can be fruitful for a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Many groves are reputed to be centuries-old, while some trees, for example in Italy, Greece, Malta and Croatia are claimed to be as much as 2,000 years old. One grafted but fruitful tree in Crete is even estimated to be over 3,500 years old, but because it is hollow there is no heartwood that can be dated. A tree in Sirjani National Park in Croatia radiocarbon-dated in the 1980s as 1,600 years old was still yielding around 30 kg (66 lb) of olives each year. Three of the venerable and ancient-looking olive tree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in Jerusalem were radiocarbon-dated and found to be mainly from the twelfth century and so are possibly planted at the time of the Crusades. Precisely when people discovered the merits of the olive tree, however, is lost in the mists of time. A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Israel have reportedly uncovered olive stones that suggest around 10,000 years of 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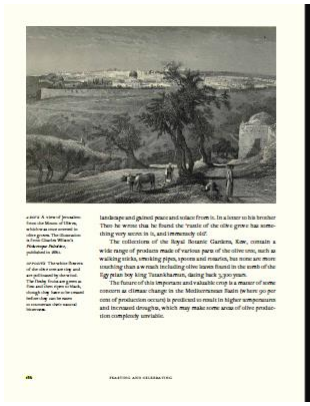
Olive trees are widespread across their native Mediterranean, and are also found in Africa and across Iran Asia, and have been taken to other parts of the world. There are many olive groves in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y were introduced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by Spanish missionaries. As the climate there is similar to the Mediterranean, olive trees thrived and cultivation took off in the nineteenth century, now covering around 14,000 hectares (35,000 acres). Olives are now also grown in Australia, where production of oil is increasing, and even in Rajasthan in India.

With such a long history of cultivation, there are now over a thousand cultivars of the olive and its distinct subspecies of *Olea europaea* occur in separate regions of its native range. The famous fruits (technically known as drupes) develop from tiny white flowers, borne in clusters, which are wind pollinated. As the fruits mature in the late months of autumn they turn from green to black. Olives cannot be eaten straight from the tree, however, because of their bitterness, caused by phenolic compounds such as oleuropein. After being harvested by hand to avoid bruising they must be soaked in water and then cured in brine for several days before being rinsed again.

The best oil is cold-pressed from the ripe fruits. This 'extra virgin oil' has the lowest acidity and highest purity. In addition to being nutritious and having possible health benefits, the oil has been used for all manner of purposes down the ages – from anointing and blessing kings, priests, athletes and sacrificial lambs, to fuelling lamps, making medications, preserving food and for massaging and cleansing.

Both the sap of the olive tree don't end there, for the hard and durable wood is also highly sought after for carving and furniture, while the trees can be planted for welcome shade, as windbreaks and to control soil erosion. Olive groves create valuable habitats in arid regions for wildlife, including the rare Iberian lynx in southern Europe, and are often filled with a rise of wild flowers in spring. Philosophers, poets and painters have been inspired by orchards of olives. Vincent van Gogh completed at least fifteen paintings of ancient olive trees while recuperating in the asylum in Saint-Rémy-de-Provence in southern France. He was keen to capture the spirit of the natural Provencal

*A small golden olive branch was left on the Moon by astronauts of NASA's Apollo 11 mission, representing a wish for peace for all the people of Earth.*



## Coconut

*Cocos nucifera*

The very word 'coconut' conjures up images of tropical islands, where waving palms fringe white sandy beaches at the edge of an azure sea. In popular imagination, coconuts are probably regarded as the typical tree of the tropics, and they have indeed been planted in many places across such regions because of their great usefulness – for food, drink, medicine, building materials, clothing and many other purposes. Appropriately, the coconut is known as the 'tree of life' in the Philippines and is grown commercially in at least eighty countries.

Most botanists think that the coconut is native to somewhere in the southwestern Pacific, but it is no longer found in the wild and is said to be the most naturally widespread fruit plant on the planet. It is impossible therefore to pin down its exact origin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French naturalist Martin Pitin recommended coconuts, writing: 'The Indian nuts also grow here, of the size of a man's head, containing an edible substance that is sweet and pleasant to the taste, and white as milk. The cavity of this pulp is filled with a liquor clear as water, cool, and better flavoured and more delicate than wine or any kind of drink whatever.' His description is still very apt, and many sailors and travellers of the eighteenth century grew to admire and rely on the coconut in their explorations.

Botanically neither a tree nor a nut, coconuts are palms (of the Arecaceae family), which in the botanical sense are herbaceous plants. Their one-like form includes a tall, fibrous, flexible stem (growing up to around 25 m or over 80 ft high) topped by 4–6 (15–ft) long leaves which are divided into the familiar 'fronds'. The plant roots and shallow roots help the tree to survive strong winds along coastlines. They are extremely versatile plants and grow in places such as the salty, sandy shores which other palms and trees cannot tolerate. As for the brown 'nut' we are familiar with, this is actually the stone of the bigger fruit

## Strychn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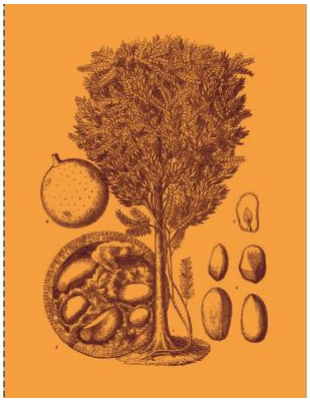
*Strychnos nux-vomica*

Strychnine, notorious in fact and fiction as a fast-acting and deadly poison, is actually a natural alkaloid found in the seeds of a tree of the same common name. If ingested or absorbed it is often fatal, usually proving deadly within three hours. Plants have evolved such alkaloids, and can concentrate them in certain parts such as seeds, bark and roots, to poison herbivores and to deter unwelcome predators from eating them (herbivory). Strychnine certainly makes sure of this.

The main species from which strychnine is derived, *Strychnos nux-vomica*, is a tree native to India and Southeast Asia. The flat, disc-like seeds that develop inside its reddish-yellow, apple-sized fruits are the source of the dangerous alkaloid, alongside another called brucine. Also known as the poison nux, this medium-sized tree develops a cluster of small green-white flowers (technically a cyme) that emit a disagreeable smell, an indication of the much more disagreeable seeds that follow. Around five seeds develop within a white sticky pulp inside the fruits, each coated in soft hair. The ashen-grey seeds can easily be removed and cleaned, and are then turned into a powder. Strychnine powder has been used as both a 'medicine' (usually as a stimulant) and a poison – depending on the dose.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strychnine has no known medical value.

The use of strychnine has a long history in Indian and Arabic medicine. Trade with India in the nineteenth century brought it to the attention of the West, and it was soon being employed as a rat poison on ships and in houses. It can bring on a particularly gruesome death as it binds to the glycine receptor of the nerve synapses, asking the brakes off and firing the nerves at the smallest stimulus. This leads to horrific muscular convulsions, with victims sometimes arching their backs so the arteries that they balance on the backs of their heads and their heels. Death usually follows by asphyxia as the nerves controlling breathing fail to function properly. Throughout much of this the victim is acutely aware of what is happening, making it a particularly cruel and dramatic way to die.

Strychnine is very bitter and we particularly soluble in water, so fortunately it not that easy to take by mistake, although this did happen on many occasions when people bought and kept bottles of the poison in their homes. Agatha Christie used it several times in her novels, including her first, *The Mysterious Affair at Styles* (published in 1920), which introduced Hercule Poirot. In her description of the murder of Emily Inglethorp, Christie revealed her extensive chemical knowledge. Mrs Inglethorp had been prescribed a strychnine tonic to invigorate her, but final pay leads to an overdose.

Strychnine administered as poison is not only a feature of fiction, however, and it played a major role in numerous real-life murder cases. One of the most notorious was that of Dr Thomas Neill Cream, who when living in Canada killed at least two women in the 1870s and a man in 1881, for which he went to prison. Once released, he travelled to Britain and proceeded to poison several prostitutes in London using strychnine. He became known as the Lambeth poisoner and was eventually convicted and hanged in 1892. Products containing strychnine are highly restricted in many countries and it has been banned in the United Kingdom since 2006; it is illegal to purchase it in any form. There is no specific antidote for strychnine poisoning, although treatments with diazepam and muscle relaxants can help. A victim of poisoning needs medical treatment as early as possible to have any chance of survival.

Other members of the same genus as *Strychnos nux-vomica* also produce deadly poisons, including *Strychnos ignatii*, or the St Ignatius bean, of the Philippines, and *Strychnos toxifera* of South America, from which curare is derived.